

단소

바른 자세와 연주법으로 단소를 연주할 수 있다.



31



단소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로 바람을 불어 넣는 취구와 앞에 4개, 뒤에 1개의 지공이 있다. 음색이 맑고 청아한 국악기로 독주, 합주 등에 쓰이며 생황이나 양금과도 함께 연주한다.

연주 자세

연주 자세

시선은 약 15도 아래로 향한다.

양팔은 살짝 벌리고 손은 단소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다.

호흡이 잘 전달되도록 허리를 곧게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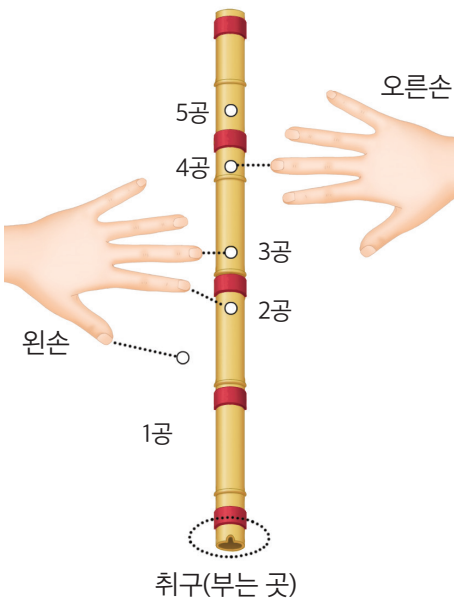
취구가 입술 중앙에 오도록 한다.

몸과 단소는 약 45도를 유지한다.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



운지법과 음역



	낮은음 (약하게)			중간음 (부드럽고 편안하게)				높은음 (힘을 주어 세게)		
울명	仲	林	無	潢	汰	沖	淋	漚	潢	汰
5공	○	○	○	○	○	○	○	○	○	○
4공	●	○	○	○	○	●	○	○	○	○
3공	●	●	○	○	○	●	●	○	○	●
2공	●	●	●	○	○	●	●	●	○	○
1공	●	●	●	●	○	●	●	●	●	●

1 바른 자세와 연주법으로 연주해 보자.



汰	冲	仲	汰
潢	淋	林	潢
濼	濼	無	無
淋	潢	潢	林
冲	汰	汰	仲
△	△	△	△

연습곡
소리내기

無	無	潢汰	汰	淋	淋
潢無		潢無	汰	濼	淋
林		林	-潢	淋	淋
仲	仲	仲	汰冲	冲	冲
	無		汰潢		
△	汰潢	△	無	淋冲	△

블리리아
경기 민요

김광석 작사·작곡 | 이유나 편보

林無	汰冲	淋淋	林無	林無	汰冲	林無	汰冲
-無	-冲	-淋	無無		-冲		-冲
潢	淋冲	冲-汰	潢	潢	淋冲	潢	淋冲
無	-汰	汰潢	無潢	無	-汰	無潢	-汰
無	無	汰	汰	無	無	汰	無
			冲				
			淋				
△	△	△	△	△	△	△	△

바람이 불어오는 곳

2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단계별로 연습해 보자.

